Macro

# 미국은 골디락스

Economist 이하연
hayeon.lee@daishin.com

- 2분기 미 경제성장률 시장 예상보다 큰 폭 증가, 물가 하향 안정 흐름도 지속
- 하반기 미 대선, AI 과잉투자 관련 불과실성 등이 미 성장 제한, 속도 조절 예상
- 다음주 FOMC 회의에서 연준, 9월 금리 인하 시사. 통화정책 불확실성 완화 전망

##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2.8%

미국 경제가 2분기 2.8% 성장했다. 개인소비, 민간투자 모두 시장 예상을 상회했으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완화시켰다. GDP 물가는 시장 예상보다 상승 폭이 둔화되었으나 근원 PCE 물가가 시장 예상을 상회했다. 하지만 지난 분기 3.7% 상승에서 2.9% 상승으로 상승 폭이 확연히 둔화되었다. 완만한 물가 상승에 완만한 성장, 골디락스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 문제는 하반기, 불확실성 확대로 성장 속도 조절

3분기에도 미국 경제는 성장 기조를 유지하겠으나, 불확실성 확대로 경제활동이 위축되면서 성장 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발표된 미국 7월 S&P PMI는 서비스업이 시장 예상을 상회하며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제조업은 시장 예상은 물론, 6개월만에 기준선을 하회했다. 특히 이전 보다 빠르게 선거 불확실성이 반영되면서 경기 낙관론이 크게 후퇴, 경제활동 위축 가능성을 확인했다. 한편 물가지수는 투입비용 부담에도 하향 안정 흐름을 이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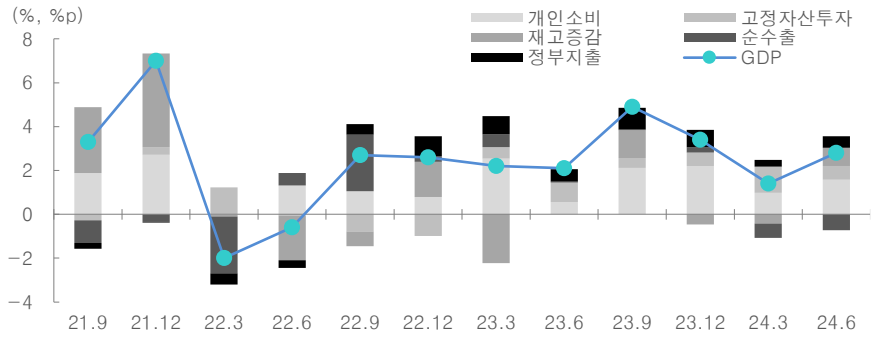
한창 진행 중인 미국 어닝시즌 또한 향후 경기 둔화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여파로 상승한 투입비용을 판매가격에 전가하지 못해 마진 축소 우려가 높았는데, 최근 실적 발표를 보면 당초 예상보다 다양한 섹터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마진 축소 압력은 결국 노동 수요 둔화로 이어져 고용시장의 추가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빅테크 주가 급락과 함께 AI 과잉투자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실적발표가 AI 혁신에 대한 시장의 과도한 기대 수준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 의구심이 확산된 것이다. 여전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AI로 인한 생산성 개선 기대가 높지만, 단기 관점에서 투자 비용 대비 수익성 개선 여부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고, 이는 향후 관련 투자 지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성장 속도 조절 요인이다.

## 그래도 성장을 지원해줄 통화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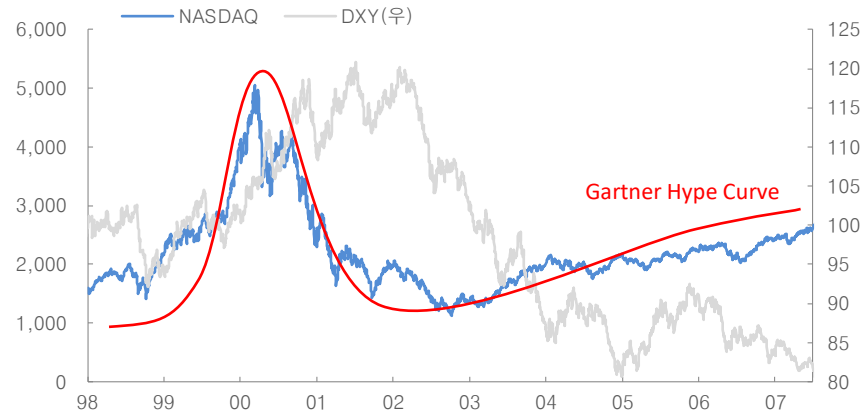
시장 예측보다 높은 2분기 PCE 물가상승률을 확인한 만큼, 6월 PCE 물가 역시 당초 시장 기대 대비 높아지겠지만, 물가 하향 안정 흐름을 저해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실업수당청구건수는 허리케인 베일 여파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고 있어, 당장 연준이 금리인하를 서두를 만큼 고용시장이 불안정해 보이지도 않는다. 따라서 다음주 연준은 FOMC회의에서, 시장 예상처럼,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전망한다. 불확실성이 부각되는 시기, 연준은 통화정책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림 1. 미국 2분기 경제성장률 서프라이즈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IT 버블 당시 주가/달러 흐름과 가트너 커브




자료: Refinitiv,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이하연)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